



2024년 8월 25일(제1208호) 연중 제21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신앙의 결단을 미루지 마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과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십니다.

다행히도 제자들의 으뜸인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은 제자들 역시 떠날지를 물어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떠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남아있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결단은 삶의 틀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결단은 단순히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대척점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머리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들의 삶의 틀을 바꿉니다. 어부로 살았던 과거, 열혈당원으로 살았던 과거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의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더 이상 신앙의 결단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느님을 피해 숨었고, 때로는 하느님을 외면했지만, 이제 신앙의 결단을 통해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선포된 베드로의 응답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이변한 주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문형주(베드로) 신부
명성대(공군 제8전투비행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여호 24,1-27.15-17.18ㄴㄷ

회 답 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 시

에페 5,21-32

복음 淸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 음

요한 6,60ㄴ-69

영 성 제 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일곱 번째 시집

예수 마리아 요셉,
안곡에서, 1859년 10월 11일

지극히 공경하고 경애하올 르그레즈와 신학교 지도자 신부님께

1858년 7월 22일자로 보내주신 신부님의 서한을 잘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에 보내 드린 저의 서한도 신부님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작년 내내 새 선교사들과 신부님들에 대한 새 소식들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신부님들을 영접하기 위해 우리 주교님께서 보내신 우리 거룻배가 강남 배를 만나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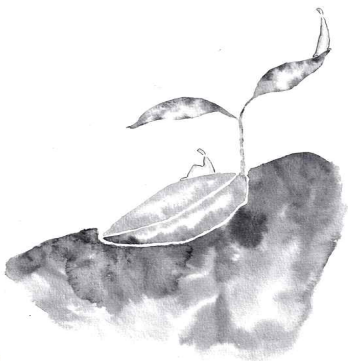
우리 배가 여러 날 동안 약속한 장소에서 강남 배를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배로 새 동료 선교사들이 입국할 줄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이 해적을 만난 것은 아닌지? 바다 소용돌이에 휩쓸리거나 앓았는지? 우리는 크게 염려하고 근심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배로 우리나라 해안에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날이 우리의 걱정이 커지고 몹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 중에서도 신부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기쁜 소식을 받고 더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 (조선)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교황 성하의 인정을 받고, 우리 자모이신 교회의 전면에서 공적으로 온 세계에 가경자(可敬者)로 선포된 소식입니다. 언젠가 우리 순교자들도 성인 반열에 오르시어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공식으로 공경을 받으시는 날이 올 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날이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인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작은 대로

작지만 괜찮아.
작은 대로 의미가 있을 거야.

지금은 작은 대로
이 시간을 다하며
사는 거야.

느려도 괜찮아.
느린 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시간을 살아내면,
더 많은 이를 품을 수 있을 거야.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기로필로 페리레제, 1520년 ~ 1525년 제작
 패널 위 유화, 35.9x52.1cm / 니셔날 갤러리, 워싱턴 D.C.

회고 매끄러운 대리석으로 마감된 건물 내부에 제자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으며, 금색·적색·청색·오렌지색·백색 및 강렬한 원색의 옷을 각기 입고 있어 흰 배경에서도 각 인물의 모습이 뚜렷이 구별되어 표현되었다. 모든 인물은 (한 명을 제외하고) 성스러운 인물을 표현하는 금빛 후광을 머리에 두르고 있다. 인물들의 중앙에 예수님이 한 제자(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고 계신다. 제자들의 반응은 각기 다양한데, 어떤 이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믿을 수 없다는 자세를, 어떤 이는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맨 오른쪽에 이 장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는 허리끈에 돈주머니 같은 것을 차고 머리에 후광도 없이 가장 짙은 머리색으로 묘사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기술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리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네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지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요한 6,61-64)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1주일: 농장 주경원 신부

◆ 교구장 동정

- 감사집 요셉 신부 은퇴 감사미사
 때·곳: 8월 25일(주일) 11:00, 정릉4동 성당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화해와 자유를 위한 교해상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